

차이를 넘어서는 번역의 모색¹

정호영(Hoyoung Chong)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안내지에는 제목 끝에 ‘실례를 중심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이 끌려 여기에 계신 분이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부분은 빼야 한다. 손님을 끌려고 낚시를 집어넣었다가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은 아니고, 주최 측에 빼달라고 했는데 착오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사실 처음에 주최 측에 제목을 넘길 때만 해도 방향을 못 정해서 그런 제목을 잡았다. 또 이 발표를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과 논의할 때도 실례를 모으고 그 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만일 실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번역 과정에서 영어와 우리말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에 속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다른 판단 기준들을 고려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 자신은 학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도 나의 생각이 실례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학생들과 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해 보았다. 학생들이 이 정도면 실례를 바탕으로 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말이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격려해 주어서 용기를 내어 약간 모험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모험적인 이야기라는 말은 어떤 답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 우리의 기왕의 생각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학문적인 모색이라기보다는 번역자의 추상적인 경험담과 비슷한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번역자의 체험담을 듣는 듯 여겨 주면 고맙겠다.

번역에 관련되는 두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번역 논의에서 빠질 수 없으며, 이

¹ 이 발표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BK21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진행한 세미나를 토대로 준비한 것이다.

런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번역 과정에서나 번역 교육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실제로 두 언어의 차이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번역에서 기본에 속하는 일이며, 또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언어, 예를 들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두 언어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번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보다는 번역에 관한 논의 전체에서 두 언어의 차이라는 문제 제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언어의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는다’고 표현해도 좋겠다.

1. 같음과 다름

두 언어가 같고 다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번역의 전부로 인식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두 언어가 의미하는 바는 같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므로 같은 면은 보존하고 다른 면은 바꾸어 준다는 것은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발상이기도 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두 언어가 같지 않다면 번역은 불가능할 것이고 두 언어가 다르지 않다면 번역은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언어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점이야말로 번역이 존재하는 근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포개질 수는 없으며 따라서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등가라고 생각하고 옮기는 단어들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의미 가운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의외로 크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번역에 진지하게 다가가 본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한 언어의 어떤 요소들, 특히 운(韻)이나 말장난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번역이 불가능한 중요한 예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 의존하는 시의 경우 적어도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산문에서도 말장난에 속하는 대목은 설명

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적인 번역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여긴다.

그러나 번역을 아무리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해도 일단 번역에 나선 이상 그런 점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하지는 않고, 언어라는 것이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해도, 또 비록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해도, 인류가 언어로 표현하는 경험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은 여러 언어로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의 불가능성에 절망하여 손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번역에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언어가 의미한 바를 다른 언어로 옮겨 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온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는다.

바로 이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양쪽 언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한쪽 언어의 표현 방식을 다른 언어로 그대로 옮겨 왔을 때 어법을 완전히 어긋게 되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법에 어긋나는 글은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다른 통로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부분은 외국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고, 번역에서는 기초에 속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결국 어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하는 경우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번역에서 두 언어의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은 대개 이 회색지대를 문제 삼는 것이며, 그 의도는 대체로 그런 회색지대의 발생을 막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회색지대의 발생을 막는 방법은 번역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에 속한다.

2. 다름의 자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두 언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하자는 것, 즉 회색지대를 없애자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주장이다. 번역을 할 때 두 언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에 무지할 경우 흔히 ‘번역투’나 ‘직역투’라고 지적받는 부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쓰게 되며, 이것은 쉽고 빠른 소통을 일부터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장애가 된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말의 표현 방식을 고려한 자연스러움이 번역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칙이고, 다른 모든 고려 사항은 여기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원칙이라 해도 그것

이 적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적용하려 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색지대를 없애자는 과제가 번역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다.

이 회색지대를 없애자는 과제는 번역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며, 이런 부분일수록 몇 가지 규칙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두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한다는 과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규칙으로 정리되면, 규칙으로 정리되기 힘든 다른 과제들을 누르고 번역의 제1기준처럼 통용될 가능성이 있고, 번역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과대하게 포장될 염려가 있다. 실제로 몇 개의 규칙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번역 방법론의 제시는 번역하는 사람에게나 번역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 나아가 기계 번역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까지 매우 유혹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어떤 기술의 규칙이라고 할 경우 그것이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변수를 최대한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두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는 규칙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간을 반영한 살아 있는 언어를 잠시 냉동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책으로 꼽을 수 있는 문용의 『한국어의 발상·영어의 발상』에서 뜻밖에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어순과 어순 배열의 원칙은 어떤 특정한 문맥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말하자면 ‘중립적’인 문장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특정한 문맥을 전제로’ 한 ‘중립적’이지 않은 문장은 이런 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문장 가운데 그런 ‘중립적’인 문장이 얼마나 될까?

이런 통찰을 잊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는 것도 번역에서 두 언어의 차이가 차지하는 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아무리 좋은 번역이라 해도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는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거기에서 두 언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바꾸어 말해 두 언어의 표현 방식 차이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다 적용하면 번역문과 원문의 차이가 사라질까? 혹시 그 규칙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즉 다른 면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달라지

는 것이 아닐까?

질문을 한 나 자신도 선뜻 답할 엄두가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번역에서 다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같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두 언어의 차이를 고려할 때 출발 언어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미 이해되었고, 이제 두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것을 목표 언어로 옮겨 놓는 일만 남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번역이 이렇게 알사탕의 껍질을 바꾸듯이 기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미는 알사탕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게다가 더운 여름날 녹아버려 껍질에 들러붙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의미라는 것이 텍스트를 읽으면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텍스트 안에 금괴처럼 묻혀 있어 곡괭이로 그것만 캐내고 나머지는 털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사실은 번역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사실 의미는 텍스트를 읽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 가운데 동적으로 형성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나마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다. 번역자가 이런 의미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번역 과정에서 두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는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원문의 표현 또한 그 의미의 원형을 아슬아슬하게, 엉성하게, 순간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물론 좋은 글일수록 그런 표현이 아니면 그나마도 고정이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표현은 의미의 모호한 형태에 딱 맞는 모양으로 달라붙어 의미가 자신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둘의 분리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립적’이기는커녕 지극히 편파적으로 문맥에 좌우되고, 자국어의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표현법에서도 일탈하는 경우가 흔해 두 언어의 차이에 관한 일반 규칙을 단순히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게다가 단순히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표현 방식 자체가 번역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소유’의 개념을 ‘존재’란 관점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어에서는 ‘소유’와 ‘존재’를 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문용, 같은 책)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소유’와 ‘존재’를 따로 인식하는 경향 또한 번역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표현의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목표 언어의 회색지대에 대한 생각 또한 달라질지 모른다. 앞서 말했듯이 불필요한 부자연스러움을 자랑할 수야 없는 일이지만, 번역자가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 목표 언어의 규범적 표현법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면, 또는 그렇게 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다면, 그때 나타나는 일탈적 표현들은 오히려 목표 언어의 표현력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즉 이 회색지대를 목표 언어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만일 그렇다면 번역자는 회색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강화하는 모순된 과제를 떠맡게 되는 셈이다.

3. 이항적 사고와 다항적 사고

번역 논의에서 의미나 표현을 동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고정시키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논의 자체가 기존의 이항적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듯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언어의 같고 다른 부분을 따지는 데에는 번역에 관련되는 두 언어라는 두 항의 설정이 전제된다. 사실 번역을 둘러싼 생각의 밑바닥에는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라는 두 항의 관계(그 연장선상에서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 저자와 번역자 등의 이항 관계)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관계가 번역을 둘러싼 우리의 사고를 여러 면에서 규정한다.

무엇보다도 같다는 개념, 즉 흔히 말하는 등가라는 개념도 당연히 두 항을 전제로 하는데, 위에서도 보았듯이 이를 우리는 한쪽 항의 고정된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다른 쪽 항에서 찾아낸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등가 개념은 어디까지나 의미의 보편성과 고정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 내에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고 이것이 번역자에게 파악되며, 번역자는 이것을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언어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두 언어의 다름도 이런 고정성을 전제한 같은 의미로서 고정된 '중립적' 문장을 중심으로 규칙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 두 항 사이에는 출발과 도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두 항 사이의 일방통행적 방향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출발 언어라는 한쪽 항에서 출발한 고정된 의미는 다른 항으로 고정된 등가의 의미를 찾아가고, 양 언어의 차이점을 해소하면서 번역으로 정착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번역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 번역자는 주어진 의미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항적 사고에서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는 이것이 번역의 많은 문제를 이 두 항의 관계로 장악하면서 특유의 양자택일적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항에 충성하느냐에 따라 의역이나 직역이나 묻기도 하고, 충실성을 택할 것이냐 가독성을 택할 것이냐 묻기도 한다. 균형을 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두 항을 계속 의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애초에 같으나 다르냐 하고 묻는 것 자체가 이항적 사고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번역에서 이항적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가의 작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 개의 언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진정한 언어를 형성하려는 위대한 모티프이다.” (벤야민, 『번역가의 과제』)

벤야민은 이 진정한 언어를 순수언어 또는 완전한 언어라고도 부르며, 황현산도 이 점에 착안하여 절대언어나 세계어와 관련하여 번역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자신도 번역의 결과물은 외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제3의 언어가 되는 듯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벤야민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언어들은 불완전하다고 전제하고, 번역은 원문의 언어가 번역의 언어를 만나 완전한 언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벤야민이 말하는 순수언어는 좋게 봐주어도 실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만일 순수언어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번역 과정에서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개념이라면 어떨까? 외국어, 자국어라는 두 항에 그것을 매개하는 순수언어라는 제3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번역 논의에서 중간 항의 존재는 낯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번역에 관여하는 두 언어 사이에 '언어화되지 않은 의미'라는 중간 항을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언어와는 발상이 좀 다른 듯하다. 오히려 언어에서 추출된 비언어적 의미가 바로 다른 언어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앞서 말한 알사탕과 껌질처럼—기본적으로 이항적 사고와 거의 다르지 않다. 또 무엇보다도 이때의 의미는 언어가 아니다. 순수언어도 아직 언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추출된 의미와 무엇이 다르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된 완성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번역어의 옷을 입기 전인 나신의 의미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어쨌든 벤야민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번역가의 과제는 완전한 번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언어에 이르는 것이 된다. 둘 다 이루기 어려운 이상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번역에 관한 생각에 주는 영향은 사뭇 다르다. 실제로 완전한 언어를 중간 항으로 놓고 이항적 사고에서 다항적(또는 삼항적) 사고로 나아가면 지금까지 거론한 많은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다. 방금 말했듯이 우선 번역의 목표 자체가 달라진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번역의 불가능성도 번역 자체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의 불완전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므로, 번역은 완전한 언어를 찾아가는 번역의 과제 내에 번역의 불가능성 문제를 끌어안아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이항적 사고에서는 양쪽 항의 언어가 완결되고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는 반면, 순수언어는 언어들의 불완전성을 전제한다. 이것은 어떤 고정된 규칙을 정하는 데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대신 번역과 관련되는 양쪽 언어를 동적이고 열려 있는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어, 또 번역에서 다루게 되는 언어의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출발언어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면 번역자가 그 언어를 읽어 나아가며 의미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아가는 입장에 설 수 있고, 그와 함께 출발과 도착이라는 표현이 전제하는 일방통행성과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어의 불완전성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며, 번역은 양 언어의 통합을 통해 완전한 언어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언어의 회색지대 또한 적어도 그 가운데 일부는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언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양 언어가 통합되어 완전한 언어로 나아갈 가능성이 배태되는 곳으로, 즉 제3의 언어 또는 번역의 언어가 자리 잡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두 언어의 차이 또한 절대적인 담으로 나뉘어 어떤 표현 방식이 어떤 언어에는 자연스럽고 어떤 언어에는 부자연스럽다는 절대적 판결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지 모른다.

나아가 순수언어라는 제3항을 들여올 경우 우리는 이항적 사고에서 강요했던 양자택일적 문제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충성의 대상이 양쪽 어느 한 항에서 제3항인 완전

한 언어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발언어에 대한 충실성이 아니라 순수언어에 대한 충실성을 지켜야 한다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물론 이렇게 다항적 사고로 전환한다 해도 같으나 다르나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와 비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그런 문제가 핵심의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 빈자리에서 번역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순수언어의 영향력을 한껏 미화한 느낌인데, 과연 순수언어라는 제3항이 수사적 표현 또는 이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번역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그 전에 우리의 번역 과정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기계가 되어 어떤 규칙에 따라 원문을 번역문으로 옮겨놓는 것일까? 그래서 번역의 기술을 습득하고 축적함에 따라 더 능숙하게 번역하고 더 유능한 기계가 되어가는 것일까? 과연 번역이 그렇게 기술의 문제이기만 한 것일까? 번역에서 두 언어의 차이가 차지하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기술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자리를 묻는 것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번역에서 기술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어리석은 일이지만, 기술적인 것이 번역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 또한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기계적인 일이 번역 작업의 모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번역을 하면서 기술적인 면들을 넘어서는 어떤 창조적인 면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실제로 어떤 완전한 언어에 다가가고자 하는 지향이 번역 작업 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직역이나 의역,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이항적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또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번역 작업은 불완전한 양쪽 언어에서 어떤 완전한 언어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나은 기계가 나온다 해도 그 기계에 다 맡기기 힘든 면이 있다. 이런 완전한 언어의 상상은 번역의 본령에 해당하는 인간적 영역과 직결되는 면이 있다. 현재 우리의 언어는 성기고, 번역의 반은 상상인 것이다.

About the author

Hoyoung Chong is Assistan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teaching Korean-English translation. He has been translating English literature into Korean since 1990s.